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

1부 “서울시 청년정책 토크아보기”  
발제문

봉건우  
경희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 1부 행사 발제문

### 1. 주제 개요

<b>주제</b>	<b>서울시 청년정책 토크아보기</b>
<b>문제 의식</b>	서울시는 청년주택 공급, 청년 월세지원, '천원의 아침밥'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분분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청년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경험한 정책의 효과와 개선점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청년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해 봅시다.
<b>논의 방식</b>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대학생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정책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발제 이후 진행되는 패널토의는 학생 대표자들이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나아가 정책을 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2. 참석자 정보

- 발 제 : 봉 건 우 경희대학교 前 총학생회장
  - 좌 장 : 함 형 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토 의 : 김 서 영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김 석 현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김 지 은 서울대학교 前 총학생회장  
박 종 진 UNIST(울산과학기술원) 학부 비상대책위원장
- \*토의자의 경우 일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발제문 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 1부 행사 발제를 맡게 된 경희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봉건우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어 행사에 참석해주신 의원 분들과 대학생, 청년 여러분, 그리고 총학생회 대표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1부에서는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의 실효성과 영향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창업,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서울시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

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분분합니다. 따라서 1부에서는 발제를 통해 서울시 청년정책의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토론을 통해서도 정책 효과, 의의 및 한계 등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정책 토크아보기로 들어가기 전, 이번 발제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목적이나 성과에 대해 판단할 때 조금 비판적으로 본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불균형 완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인데요. 모든 정책은 현재나 미래에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고 봉합하는 목적을 가지고 마련되고, 그 성과 또한 목적에 맞춰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목적이나 성과를 판단할 때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그를 평가하게 되는데, 현행 서울시의 정책의 경우 그러한 내용들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을 중심으로 해당 발제문을 작성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면서 발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거 분야의 청년정책 중 자가가 아닌 월세나 전세의 형태로 거주하는 대다수의 청년들, 그리고 고시원과 같은 매우 좁은 평형에서 기본적인 주거의 형태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클린임대인인증제'와 '안심고시원인증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클린임대인인증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안심고시원인증제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계약에 있어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클린임대인인증제의 경우에는 전세사기 불안, 월세비용 급등 등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의 주거 비용이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하며, 안심고시원인증제는 고시원을 비롯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청년층의 환경 개선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정책들은 모두 사전에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거나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강력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진 정책이 아닌, 임대인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주거형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갖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형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12제곱미터(약 3평)에 불가한 최저주거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도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분야의 청년정책 중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시가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청년 창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서울시-대학-자치구' 협력모델을 만들었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2,300팀의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내에 대학이 없는 경우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등 자치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이외에도 타 창업 지원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지원 대상 기업 중 학생 기업이 비율이 낮은 현상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활성화까지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복지 영역 청년정책 중 '천원의 아침밥'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서울시 소재 대학으로의 사업 대상 전면 확대, 장기적 예산 공급책 마련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 대상으로 양질의 1천원 조식 제공에 필요한 학교 부담금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학은 31개로, 서울시 소재 54개 대학에 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대학별 자율예산이 투입된다는 맹점 또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정책의 취지의 경우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영양가 높은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소위 말하는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을 바탕으로 소득이나 부모의 자산 등의 차이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규모나 재정 상태에 따라 대학별로 자율예산이 투입되는 규모가 상이하고, 이로 인해 학교별로 배식되는 급식의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해당 정책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옳지 못한 방향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며 실질적인 문제해결효과도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닌,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성을 토대로 '불균형 해소와 양질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좀 더 많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 내용과 더불어,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에서 서울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정책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정책 관련 인식 및 만족도 전반, 나아가 정책 제언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생, 청년, 총학생회 대표자 등 다양한 청년세대들의 입장과 의견을 들으며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봅시다. 서울시 청년정책이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석자 분들의 활발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4. 토론 주제

**Q1. (전반적 평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와 제언점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내려봅. 서울시 청년정책들이 일시적인 복지 또는 혜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청년들의 삶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봅.

**Q2. (청년정책 방향성) 현재 대학생 관점에서 지방정부에게 바라는 점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있는 각종 물적 인프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앞다투어 서울시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해봅.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

1부 “서울시 청년정책 톺아보기”  
좌장 의견문

함형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 1부 “서울시 청년정책 토크아보기” 좌장 의견문

함 형 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 Q1. 전반적 평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와 제언점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개요

서울시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체감도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정책에 대한 효능감과 만족도가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책대상자가 가장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천원의 아침밥 보조금 지원 사업’과 ‘기후동행카드’는 청년들이 고물가 시대에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 청년정책 토크아보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며, 다양한 대학생 대표자들의 폭 넓고 깊이있는 정책 평가와 제언을 기대해본다.

## Q2. 청년정책 방향성

현재 대학생 관점에서 지방정부에게 바라는 점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개요

인적 자원과 물적 인프라 등이 집중되어 있기에 많은 청년이 서울로 모여들고,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청년 인구 유입을 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매력적인 청년정책이 필수적일 것이다.

청년들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하고, 삶의 공간과 안정적인 토대를 보장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토론 순서를 통해 지방정부가 추구해야할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함과 동시에, 범위를 확대해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에 관해 종합적으로 토론향기를 기대한다.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

토 론 문

김서영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1부 “서울시 청년정책 토크아보기” 토 론 문

김 서 영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Q1. 전반적 평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와 제언점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개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 정책은 전반적으로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주거와 일자리 측면에 있어 개발된 정책들이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긍정적임. 다만 시행 중인 정책들에 대한 보완점을 검토하고,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해야 함.

예컨대 주거 정책에 있어 안심주택 공급의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이자 대출 프로그램이나 주택 보증금 지원 정책 등 직접적인 자원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병행해볼 수 있을 듯.

더불어 정책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 역시도 필요할 것임.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접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 혹은 필요 이상의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통일된 정책 안내와 신청 절차를 구축한다면 좋을 듯.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에 허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허점을 통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인원이 없는지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것임.

## Q2. 청년정책 방향성

현재 대학생 관점에서 지방정부에게 바라는 점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개요

우선적으로 서울시 청년정책과 같은 정책들이 각 지방정부에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공통된 정책보다는, 각각의 차별점을 가진 정부가 협력하는 등의 방안이 더욱 매력적일 것.

서울 기업들이 각 지역으로 진출하여 청년들을 지원하거나, 서울시에서 창업 등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각 지역 정부 간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과 연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거 지원 역시 빼놓을 수 없음.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통일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주거 지원 제도 등을 확인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함.

단순히 일자리나 주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문화 교류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지방 정부에 대한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할 것임.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

토 론 문

김석현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 1부 “서울시 청년정책 토크아보기” 토 론 문

김 석 현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 Q1. 전반적 평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와 제언점을 공유해주  
시기 바랍니다.

### 의견 개요

서강대학교는 서울 소재의 종합대학인 만큼, 일반 학우들이 체감하기 쉬운 취창업에  
초점을 두어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서울시에서 운영 중에 있음.

- SW개발 과정/디지털전환 과정 청년구직자 대상으로 신기술 실무역량 교육을 제공  
하며 동시에 교육비가 무료이기에 학우들로부터 부담이 없다는 극찬을 받음.

다만, 이에 대한 피드백으로 실제 기업과의 사관학교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음.

교육의 측면에서 일단락될 것이 아니라, 우수 피교육자 혹은 일정 점수 이상 받은 학생  
들에게 실제 기업에 몸담아볼 수 있는 조금 더 “직접적인” 체험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 현재 청년들은 배우는 것에는 이미 많은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 표출해내는 장이 부족하다고 생각 됨.

조금 더 의견을 덧붙여 보자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청년 인턴 직무·국제캠프와  
사관학교 사업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또 하나의 사업이 마련된다면 청년 취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생각됨.

이밖에도 서울시 일자리카페가 운영되고 있음. 면접을 준비하느라 장소 대여가 힘든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일자리정보, 취업상담, 멘토링, 특강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

결론적으로, 이미 이정도만으로도 사실 타 지역들에 비해 서울시 정책은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대학 현장에서 보았을 때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움에서 더 뺄어나  
가 직접적인 체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 Q2. 청년정책 방향성

현재 대학생 관점에서 지방정부에게 바라는 점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개요

좌장님의 말씀대로, 지방인구가 소멸됨과 동시에 다른 관점으로 인구적 측면에서 보았  
을 때 저출생 문제가 현저히 심각해지고 있음. 청년을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으  
로 미래세대와 직결되는 연령층임에 이견은 없을 것임.

이에, 청년들이 마음놓고 자기계발도 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지방 인구가 소멸됨을 그저 바라만 보거 묵과해서는 안될 것,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  
도 지방의 의회나 기관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수도 제1의 의회가  
당면한 과제임은 분명한 사실임.

또한, 지방 정부에도 인구 과밀화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인구가 유출되는 데 있어 경  
각심을 가지고 정책 마련에 힘 써야한다고 역설하고 싶음.

청년 정책의 방향성은 결론적으로 미래지향적이어야 함. 현재만을 보고 단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면 저출생은 물론 부양인구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피부양인구로만 이루어진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지방 정부간의 협업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봄. 서울시의회에서 본 토의를 진행하는 만큼, 이 자리가 뜻깊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됨.

본 자리를 의원님들께서도 일회성의 발표가 아닌 정부 운영하시는 데 있어 참고해주 십사 하는 바람이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

토 론 문

김지은  
서울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 1부 “서울시 청년정책 토크아보기” 토론문

김 지 은 서울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 Q1. 전반적 평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와 제언점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개요

모든 정책의 기본은 정보 접근성과 소통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순간 그 정책의 효용성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가 청년정책 영역에서 가장 높게 평가할만한 것은 ‘청년 몽땅 정보통’이라는 청년정책의 접근성을 높인 창구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분야별로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지원 신청, 프로그램 참여 등 각종 서비스가 일원화되어 있고, AI 등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해당하는 정책을 추천받을 수 있어 정보 검색 등의 배리어를 낮추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한다 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청년사업을 토크해보면, 교육문화 영역의 사업지원이 타 영역에 비해 적은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학금 영역이 대학생 장학금 외에 존재하지 않는데, 현재 청년들이 나아가는 직군이 다양해지는 추세에서 장학금 영역(학업장려금 등)을 대학생이 아니라 다양한 직군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직무훈련 등과 연계하여 확대해볼 수 있습니다.

## Q2. 청년정책 방향성

현재 대학생 관점에서 지방정부에게 바라는 점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개요

지방 정주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과 그외 정책영역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룬다면,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청년의 유입이 아니라 유입된 청년들이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확신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지방을 기피하는 이유는 본 문제의식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결국 각종 인프라 및 네트워크의 차이인데, 단발성의 청년정책은 결국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청년들이 미래를 생각하여도 ‘이 지역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이끌어 내야 합니다.

언젠가 중년이 된 자신들, 아동/청소년기를 보낼 미래의 자식들에게도 좋은 환경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기에, 청년이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삶의 다른 단계에서는 어떻게 정책 효과를 누릴 수 있게되는 것인가의 해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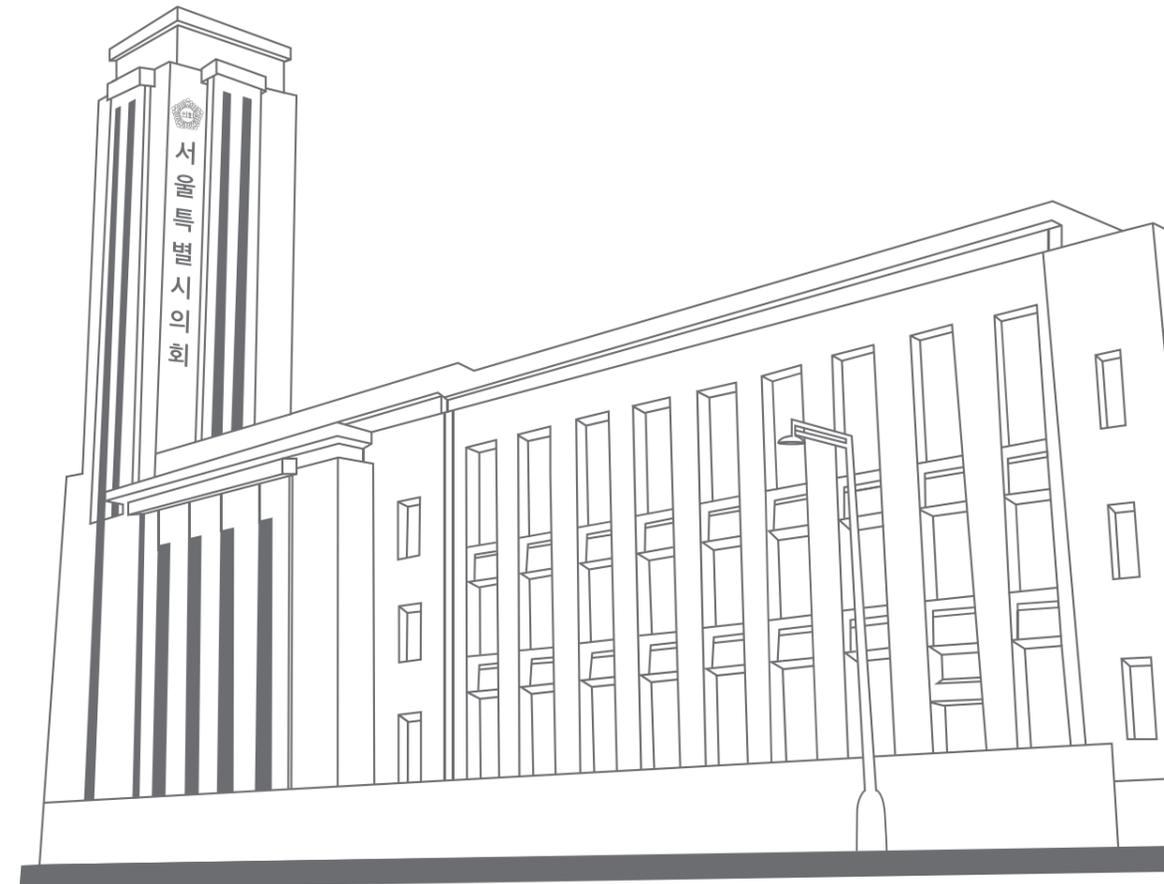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청년정책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일종의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청년이기에 제공되는 정책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청년정책과 그외 정책사이의 단계/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

토 론 문

박종진  
UNIST 비상대책위원장



# 1부 “서울시 청년정책 토크아보기” 토 론 문

박 종 진 UNIST 비상대책위원장

## Q1. 전반적 평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와 제언점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개요

서울시의 정책은 하드웨어 및 현물 보조의 형태에서, 다차원의 소프트웨어를 같이 고민해나가는 길에 서 있다고 판단됨.

청년임대주택이 가지는 임대료 문제는 임대보증금 제도 등을 통해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 대출하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정책과 보조금 제도에는 세수와 우선순위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 문제의 경우 현행 대출 연계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보증금 상한선 인상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리라 사료됨.

청년주택의 공급과 운영 전반에 대해, 앞으로의 도시가 다양한 형태의 거주자(가족)에 열릴 경우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제언 (2인 이상 친구끼리 동거 등)

지원의 재원과 지속가능성이 항시 대두되어야 함.

- 재원 명시 필요: 기후동행카드 등의 적자 보전 재원
- 지속가능성 고려: 일부 마중물 형태의 기관 연계 사업 (천원의 아침밥 등)

시가 특색있게 캠퍼스, 중소기업, 보육시설 등과 함께 꾸려나가는 청년정책은 짧은 시일 내

에 효율을 보기엔 어려울 것이기에, 더욱더 긴 호흡에서의 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같이 청년의 '필요'를 더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접근은 모든 도시에서 긍정적인 시도라고 보이나, 잠재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흐름을 고착화하는 체계를 만들기보다, 입안자들이 바쁜 일상 속 다양한 이해당사자들(hard-to-reach-group)을 찾아다닐 수 있는 행정 흐름이 만들어져야 함.

앞으로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시가 예상하는 추가 유입 인원과 유입 유형, 반대급부로 도시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은퇴한 2기 베이비부머들을 바라보는 시선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Q2. 청년정책 방향성

현재 대학생 관점에서 지방정부에게 바라는 점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개요

청년정책의 방향성: 법과 경제적 흐름 속에서 사회화 과정, 임금 격차 등을 오롯이 마주해야 할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정, 주, 락이 보조금, 감세, 무이자 대출 확장, 공공인프라 확대 등으로 나아가는 것.

잠재적 문제: 공공인프라 확대가 '규모의 경제'로 작동하는 수도권, 지방세 확대의 수혜자로서 기능하는 수도권. 경제적 문제를 제외한다면 지방은 왜.

단순 공모형태의 나눠주기식 예산 마련은 서울 및 지방 모두가 지양해야 할 것. 시민참여, 주민주도의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거버넌스 차원에서 (1) 정확한 정보에 대한 이해 (2)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포럼 식으로 비단 청년만을 수혜자로 지정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필요함.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

---

2부 “학생자치 위기론에서 역할론의 전환”  
발제문

---

박현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사무처장



##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 2부 행사 발제문

### 1. 주제 개요

<b>주제</b>	<b>학생자치 위기론에서 역할론의 전환</b>
<b>문제 의식</b>	학생자치 위기론이 대두된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20여년 간 수많은 학생회가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으려고 시도했지만, 학생회 등 학생자치에 학생들의 참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생자치의 방향성에 관한 의견 역시 분분한 상태입니다. 학생자치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민주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자치가 어떤 역할과 행동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숙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청년의 발언권을 강화하며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학생 자체 노력, 지방자치단체 등 제도권의 노력 등)에 대해 탐구해봅시다.
<b>논의 방식</b>	주제발표는 학생자치 현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패널토의는 고려대, 연세대, KAIST 등 주요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모여, 각 학교의 학생자치 사례와 학생자치 위기의 문제 원인 분석과 해결책, 기대되는 미래의 학생자치 역할을 함께 논의함.

### 2. 참석자 정보

- 발 제 : 박 현 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사무처장
- 좌 장 : 김 성 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학부 부총학생회장
- 토 의 : 김 서 영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김 민 성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장
- 양 태 규 GIST(광주과학기술원) 학부 비상대책위원장
- 박 종 진 UNIST(울산과학기술원) 학부 비상대책위원장

\*토의자의 경우 일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발제문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 2부 행사 발제를 맡게 된 총학생회공동포럼 사무처장 박현민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어 행사에 참석해주신 의원 분들과 대학생, 청년 여러분, 그리고 총학생회 대표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부에서는 "학생자치 위기론에서 역할론의 전환"을 주제로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토론하게 됩

니다. 저는 과거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부총학생회장과 비상대책위원장으로도 활동했었는데, 따라서 2부에서는 저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한 발제를 통해 학생자치의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토론을 통해서 시대에 부합하는 학생자치의 역할, 이를 위한 학생사회와 제도권의 노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30여년이 넘어가는 학생사회 위기론”

학생사회 위기론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대학의 총학생회 선거가 선거 개표요건을 넘지 못하거나 입후보자가 없어서 무산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친구들에게 학생회를 한다고 하면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학생회 활동을 하는 나를 걱정합니다. 응원과 걱정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어떤 때는 나의 활동에도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도 못하고, 아무도 나의 노력을 알아봐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 등 세간의 평가에 따르면 학생사회 위기의 원인은 취업난, 개인주의 등 학생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총학생회는 사라지고 말아야 할 역사적 유물에 불과할까요? 이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학생사회가 역동적이고 활성화되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과거 자료를 살펴보면 학생사회 위기론이 대두된 지는 벌써 30년이 넘어갑니다. "투표율 50% 채우기 비상 학생운동 대중성에 적신호"... 1999년 기사 제목입니다.

#### “총학생회의 구조와 역사”

본격적으로 학생사회 위기론을 논하기에 앞서서 총학생회의 구조와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한국대학의 대다수 총학생회는 민주집중제 구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제, 지방자치 등 대한민국 정치제도와 비교해보면 선출 권력에게 더 강한 권력과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총학생회는 단일한 의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자의 책임 부여가 명확하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처한 문제에 대한 강한 단결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토대로 총학생회는 학원의 자주화와 국가의 민주화에 앞섰습니다. 독재 군사 정권에 저항하고, 총학생회장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중국에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고, 실제로 정치적 민주화를 성취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민주화 달성 이후 학생자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회구성체 논쟁으로 이어졌고 이념 간 정쟁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격한 운동으로 인해 국민적 설득에 실패를 겪었습니다. 1996년 8월 연세대 사태 등 당시 MBC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2.5%의 국민들이 경찰의 단호한 대처를 지지했고, 80%의 국민들이 시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표했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집중'만 강조되고 '민주'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은, 즉 다수결과 절차적 공정성에 치중되고 공공성과 내용적 정당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민주집중제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 “시대에 맞는 총학생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학우들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활동으로 총학생회는 냉소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0여년 간 수많은 학생회가 학생사회 위기론에 대한 대합을 내놓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어떤 학생회는 사회변혁운동이나 정치운동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어떤 학생회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축제와 복지행사를 이야기했지만, 둘 모두 위기론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총학생회에는 강한 힘과 조직력이 있습니다. 학우들의 일상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고, 대학생과 청년, 미래세대의 현안 문제들을 다룰 힘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법적인 틀을 넘어서서, 정말 (총)학생회가 현재 대학생들의 지지

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에 집중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시대에 맞는 총학생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역할을 논하기 위해 먼저 우리세대는 무엇에 관심하는지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관심하는가”**

앞서 세간에서는 학생사회의 위기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학생들의 무관심과 개인주의를 골랐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무관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들은 여전히 선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등록금, 재수강 등 학사제도 개선, R&D 예산 문제 등등 개인의 일상 문제를 총학생회와 제도권 정치가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대는 독립, 반공, 산업화, 민주화 등 공동체적 의제에 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처음으로 공동체적 의제 보다 개인적 의제에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의제로 인해 공동체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동체성의 위기보다는 기회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와 개별적 맥락이 더 중요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개인적 의제가 강화되어도 공동체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며, 대화와 협력, 조정과 합의 등 그만큼 성숙하고 민주적인 공동체의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정책적·제도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대학 학생자치”**

개인적으로 저는 총학생회가 청년과 미래세대의 정체성을 가지는 대학생들을 대표하며, 그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총학생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 중 하나로서 공공부문의 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학생 대표자들의 총학생회(학생자치) 역할에 대한 부족한 고민으로 말미암아 총학생회의 정책적, 제도적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당장 학교에서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총장 선출 등 참여의 기회가 제대로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초등, 중등교육에서는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과 공동체 활동 기회 제공 차원에서 학생 자치는 적극적 권장과 원활한 지원의 대상이 되지만, 대학 학생자치에 대한 지원책과 제도적 역할 보장 방안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위기론을 넘어서 역할론으로의 전환”**

학생자치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민주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위기론을 넘어서 역할론을 논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실천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기획단, TF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우들의 학생자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공약의 몰개성화, 패키지화로 인해 집행위원들이 단순 관료가 되는 것을 주의하고 함께 일하는 이들의 자아실현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포럼과 같이 총학생회의 연대체를 만들어 대화와 협력을 지속하고, 기층단위 활성화와 공론장의 복원을 위해 힘쓰기도 해야 합니다. 제도권도 마찬가지로 이를 위해 여러 노력과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학생자치활동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하고, 끈기 있고, 강한 사람만이 연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

작해 있는 힘껏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웃의 안녕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사랑과 마찬가지로, 총학생회가 어떤 조직이어야 하는지, 학생자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학생자치가 위기론을 넘어서 학생사회와 한국사회에서의 역할론을 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각고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학생회가, 나아가 정치가 학생들과 시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시 사랑과 명예, 선한 영향력의 공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공동포럼의 사무처장으로 학생회가 다시 선진민주주의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협력하겠습니다.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발제를 마치고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토론 주제**

**Q1. 대학 학생자치의 위기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자.**

학생자치 위기론이 대두된 지 30여년이 넘어갔습니다. 세간은 학생자치의 위기를 학생들의 무관심과 개인주의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학생자치의 위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이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례를 통해 공유해봅시다.

**Q2. 시대에 맞는 학생자치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학생회/제도권 차원에서의 실천과제는 무엇인가?**

학생사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학생회는 사회변혁운동과 정치운동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어떤 학생회는 그 반대급부로서 축제와 복지행사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 모두 명쾌한 해답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분법적인 틀을 넘어서서, 2024년의 학생자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논의해봅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생회 자체의 노력과 제도권 차원에서의 실천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나눠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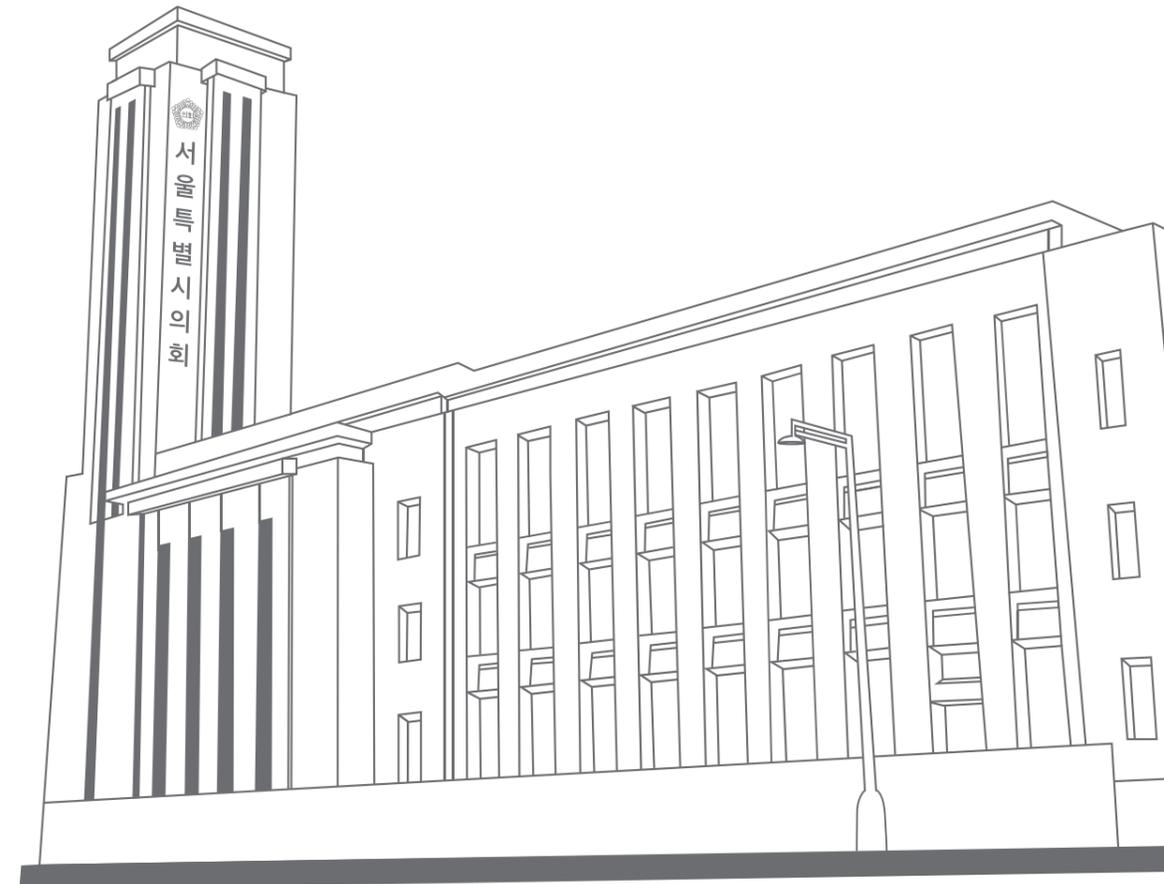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

---

2부 “학생자치 위기론에서 역할론의 전환”  
좌장 의견문

---

김성원  
KAIST 부총학생회장



## 2부 “학생자치 위기론에서 역할론의 전환” 좌장 의견문

김성원 KAIST 부총학생회장

Q1. 대학 학생자치의 위기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자.

### 의견 개요

많은 대학교의 총학생회의 회칙 초입에서는 총학생회의 회원을 ‘대학교의 학부생 모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학’이라는 단어는 ‘총학생회의 집행부원’을 일컫는 의미로 통용되고는 합니다. 총학생회가 개개인의 삶을 직결되게 변화시켜주지 못했으며, 회원으로 속해있음에도 별개의 단체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가 없는 것처럼, 회원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총학생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KAIST는 기조 전반과 연대 활동에 대해 총학생회와 학우들의 의견이 충돌했었고, 신임 투표를 거쳐 총학생회장단이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1년 남짓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총학생회(집행위원회)는 학생들의 시선에서 하나의 동아리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대표자로 일하고 있는 지금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매 순간 고민해옵니다.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참여 방법을 다양화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셔틀버스 정책을 다루면서 총학생회 집행부 내가 아닌, 교통을 연구하는 학부생들과

함께 기획단을 조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총학생회의 업무들이 고도화되고, 다변화하는 만큼 더욱 효과적인 기구로 총학생회가 거듭나기 위해서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Q2. 시대에 맞는 학생자치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학생회/제도권 차원에서의 실천과제는 무엇인가?

### 의견 개요

총학생회가 각 학교 학생들의 권익을 위하는 기구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낮은 층위에서는 학사 제도, 기숙사 등 피부에 닿는 생활을 바꾸어 나가며 직접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높은 층위에서는 한 학교의 학생들이 속한 대의기관으로서, 대학생 전반이 공감하는 의제들을 해결해나가는 한편 총학생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와 제도권에서는 ‘총학생회의 기능’에 공감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회를 하다보면 열과 성을 다한 사업들이 현실, 특히 제도와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활동의 효능감을 잃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학생자치가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의 활동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웨덴의 사례를 좋은 예시로 들고 싶습니다. 법령에서부터 학생 대표성을 법적 의무로 보장하고 있으며, 제도권에서의 정책을 실행해 갈 때 학생회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또한, 학생회를 하다보면 대표자는 휴학을 고민하고, 임원들은 학업에 부담을 가질만큼 많은 양의 업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학생의 본분은 학업임에도 그 본분을 다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스웨덴에서는 학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임금을 받는 ‘정규직’ 집행부원을 고용하여 운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총학생회가 민주화라는 사회 변혁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기

여를 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로는 제도권에서는 멀어지고 그 정체성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자치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기반으로 더욱 성숙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만큼, 제도권에서도 총학생회를 하나의 시민단체로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

토 론 문

김서영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2부 “학생자치 위기론에서 역할론의 전환” 토 론 문

김 서 영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Q1. 대학 학생자치의 위기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자.

### 의견 개요

우선 최근의 분위기가 학생사회 위기론인지, 변화한 청년들의 현실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학생사회의 모습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층이 공동으로 마주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보다는, 각자의 미래를 찾아가는 것이 보다 급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사회의 발전을 고민하는 시간이 점차 개인의 발전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학생회와 같은 학생회 집단이 더 이상 학우들에게 ‘대표자’로서 역할한다기 보다는, 학사 제도와 인프라, 등록금이나 기숙사 문제 등을 해결하고 개선해주는 ‘대리인’으로 역할하고 있는 듯합니다.

무관심과 개인주의라는 것은, 과거 공통된 의제에 머리 맞대어 정답을 찾고자 하는 학생사회의 분위기가,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학내 의제들에 대한 요구로 채워지는 학생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학우분들에게 여전히 총학생회의 필요성을 설득하면서도, 개개인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사업들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2. 시대에 맞는 학생자치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학생회/제도권 차원에서의 실천과제는 무엇인가?

### 의견 개요

우선 학생자치가 지켜내고 보장할 수 있는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주된 거시적인 가치를 지키고자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때로는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가치 증명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각자가 추구하는 이상이나 의식이 너무도 다양해졌음을 인정하면서, 언제든 학생들의 많은 목소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장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도록 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자치의 영역이 학생 개개인과 분리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학생자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두되, 단순히 학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대리인의 위치에 있는 것에 안주하는 것 역시도 위험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연하다’ 혹은 ‘원래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정도로 인식되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 차원의 협업을 꾀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학생자치를 보존해 나가기에는, 1년이라는 임기의 한계를 지닌 학생회의 단적인 공약과 정책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연속성을 유지한 채 나아갈 수 있는 학생자치를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총학생회 공동포럼과 같은 사업을 통해, 때로는 같은 지역의 학생들이 의기투합하거

나, 전국 대학생들이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유지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영역은 '학생사회'이겠으나, 이 과정에 얽혀 있는 지역 주민들과 국가 제도적인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생과 다양한 단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러한 고민들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

토 론 문

김석현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 2부 “학생자치 위기론에서 역할론의 전환” 토 론 문

김 석 현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Q1. 대학 학생자치의 위기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자.

**의견 개요**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의 회·세척 전문에는 서강 공동체의 정신과 목표가 잘 담겨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관계에서의 정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비판적 정신을 함양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러한 신념은 서강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민주적이고 자유로우며 모든 회원의 평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생자치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과 개인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리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통된 목표를 위해 모이기보다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저희 총학생회는 대화와 상생을 중시하며, 여러 소통창구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학우분들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학생자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총학생회가 지속적으로 서강 공동

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면, 학생자치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Q2. 시대에 맞는 학생자치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학생회/제도권 차원에서의 실천과제는 무엇인가?

**의견 개요**

시대에 맞는 학생자치의 역할은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학생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2024년의 학생자치는 단순히 과거의 이념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와 필요를 수용하는 유연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총학생회는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학우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담당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총학생회는 결국 학생사회의 침묵을 야기하며 학생회를 향한 신뢰를 감소시킴이 자명합니다.

단순히 교내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학우분들이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의견과 이상이 충돌하는 장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자치가 학생 개개인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권 차원에서도 학생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과제가 필요합니다.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학생자치가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프로젝트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적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학생자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서강대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대학의 학생회가 협력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생자치가 단순한 대학 내의 조직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

토 론 문

김민성  
DGIST 총학생회장



## 2부 “학생자치 위기론에서 역할론의 전환” 토 론 문

김민성 DGIST 총학생회장

Q1. 대학 학생자치의 위기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자.

### 의견 개요

지금의 학생자치는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해결 것이라는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자치를 진행하며 시간이나 돈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수의 학교에선 단일 후보로 선거가 진행되거나, 선거 성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사회분위기가 점점 자신의 앞날만을 고민하게 되고, 당장의 자신의 커리어와 앞 날을 위해 성적, 활동을 채워가야 분위기로 바뀌게 되며 학생자치와 참여율의 저조, 개인주의의 위주로의 무관심이 강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원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한 학년당 적은 학생수에서 개인주의적인 사회상이 강해질수록 학생회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수는 줄어들 것이고, 이는 학생자치의 힘과 목소리가 약해지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GIST는 올해 학생회의 봄을 일으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회가 뭘 변화시킬 수 있겠어, 그냥 한 자리 해볼려고 나왔구나, 이랬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학교와 직접 부딪히고, 될 때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했던 전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꾸준히 목소리 내고, 변화하기 위해 꾸준히 의견을 수렴하며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학생자치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결과를 이끌어내더니, 학생들의 학생자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학생들의 학생자치 참여의 효율과 비효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학생자치를 참여했을 때, 그 의견이나 바람이 학교까지 전달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변화할 수 있을까, 이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이후부터 많은 학생들의 학생자치에 대한 분위기나 시각이 달라졌고, 참여도가 올라갔습니다.

Q2. 시대에 맞는 학생자치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학생회/제도권 차원에서의 실천과제는 무엇인가?

### 의견 개요

먼저, 학생회라는 조직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가? 부터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총학생회는 매 해 단일 후보 또는, 후보자 없음의 상황을 급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일 후보가 출마 하였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선거 성립 조건 투표율에 도달하지 못해, 재선거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생자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있어야 학생자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학생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회 하면 뭐가 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종합대학에서의 분위기는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과학기술원의 상황은 더욱 심합니다. 임기동안 열심히 학생자치를 이끌고, 진행해야 하는 직책 아래서, 남는건 잠깐의 활동이력, 지금의 이런 상황때문에 과학기술원의 학생들은 학생회 활동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정작 참여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의 당장에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진실된 커리어(연구 실적, 과제 참여, 학점 등)에 좀 더 집중하려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지금의 많은 학교 학생

자치의 모습의 예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학생자치의 비효율에서 비롯된 문제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의견을 낼 때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힘이 작다는 인식이 짙습니다. 교육과정위원회, 평의회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자치 기구에 대한 합법적이고 수용적인 학교 및 기관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제도권 차원에서 요구드리고 싶은 바는, 학생자치 기구와의 의견 대담회, 토론회 등의 현장에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정책 진행 과정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보단 정책의 변화가 선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현장 관계자들은 당연하게도 반발하거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부가적인 행정적인 업무,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적인 업무 진행 절차가 진행하려고 하기 전, 현장에서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

토 론 문

양태규  
GIST 비상대책위원장



## 2부 “학생자치 위기론에서 역할론의 전환” 토 론 문

양 태 규 GIST 비상대책위원장

Q1. 대학 학생자치의 위기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자.

**의견 개요**

최근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치활동에 관심이 없는 것을 넘어 자치단체의 필요성조차도 못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생 자치 위기의 원인으로 무관심과 개인주의를 거론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대학생들을 ‘개인주의’라는 프레임으로 가두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학생들은 본인을 챙기기조차도 너무 바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이 안되고, 당장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힘든 마당에 스펙을 채우기에도 벅찬 시간을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학교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GIST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GIST는 장기간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만들어낸 경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GIST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원은 교수님과의 컨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인턴 경험과 학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비교과활동으로서 여겨지는 학생자치활동은 더 이상 진로에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거 때마다 지원자가 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학생회 구성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또, 이미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사회운동이나 큰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위해서는 다른 진로를 위한 활동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학생 자치가 현재의 사회 구조에서 ‘이상’이 되어버린 이유는 사회 불안정에 따른 지나친 경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2. 시대에 맞는 학생자치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학생회/제도권 차원에서의 실천과제는 무엇인가?

**의견 개요**

학생 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학생회의 주요한 목적은 학생들의 생활과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겪는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한 층 더 즐거울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만약 사회적 문제로 학생들의 가치나 진로가 위협을 받는다면 학생회 차원의 사회변혁운동을 개시할수도 있습니다. 결국, 학생자치의 역할은 ‘학생’이 주인이 되어 ‘학생’을 위한 모든 행동이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할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대내적으로는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개발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귀기울여야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학생대표단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해야합니다. 학교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요한 기획의 경우 보통 간부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탁상행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중요하고 부끄러운 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해서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진정으로 학생들의 삶이 개선되고 생활 수준이 한 층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학교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앞서 1번 질문에서 제가 지적했던 취업 시장 개선과 대학원 여건 개선 등 학생 자치가 구성되지도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학생이 학교와 그 구성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여러 활동이 '손해'가 아니게 되길 기원합니다.